

# 파리에서 인정받은 전통·현대의 융복합

전당 '춘계 메종&오브제' 참여

중국 등 동양의 여타 부스와 차별화된 강점 부각돼 갤러리들에게 큰 호응 얻어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상품들이 패션과 디자인의 도시 파리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2018 춘계 메종 & 오브제'에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과 무형문화재 제품 등 총 40여점을 전시 및 판매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 세계 60여 개국, 8만 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이번 대규모 행사에서 전당은 '조우(邂逅-Merge)'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열고 전통적인 기법이 담긴 장인들의 기술에 현대의 쓰임에 맞도록 이를 재해석한 디자이너의 탐구 정신이 복합된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로 갤러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당은 행사기간동안 김주일 디자이너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김수영 유기장의 협업 작품인 '과일테이닝'을 비롯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2018 춘계 메종 & 오브제'에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과 무형문화재 제품 등 총 40여점을 전시 및 판매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박재우 디자이너와 권원덕 작가의 '미니 바' 정소이 디자이너와 장성원 작가의 '인연' 대나무 필터, 스틸 시리즈, 전통 옷돌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웃', 도자기 술잔으로 만든 'Balmeed' 등 총 40여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전통과 모던', '장인과 디자이너의 융합'이라는 협업적 요소는 중국과 일본·대만 등 동양의 여타 부스와 차별화된 강점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동양의 제품들은 서양의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형미나 디자인, 세련미가 뒤떨어진다는 간의 지적을 일소하는 장인과 디자이너의 콜라보(collabo)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파리의 여행 매거진 및 인터넷 커뮤니티 회사인 '오봉파리' 제시 코호누(Jessy Comu) 대표는 "여러 전시 부스 중에서도 한국의 부스는 디자인적 요소가 한층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공간이 편안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전시품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취재경쟁도 뜨거웠다. 프랑스 유명 매거진 회사인 엘페이퍼매거진을 비롯해 아트앤데코레이션과 엘르 데코, 에어프랑스 매거진, 르몽드 디프로메티크 등 다수의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전당의 부스를 찾았다.

변지영 파리 릴지역 한인회 회장은 "디자인 아티스트와 장인의 협업사업을 통한 전시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프랑스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도시다. 장인에게도 소득이 돌아갈 만큼 적절한 가격 책정을 통해 한국·전주의 우수한 융복합 상품들이 세계 속에 자리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국악으로 여는 새해

국립민속국악원 16일 무대

국립민속국악원은 16일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으로 여는 새해, 설맞이 국악공연'을 마련한다.

국악원의 국악연주단과 솃대강이패보존회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예원당 마당에서 한 해의 소망을 비는 '소원성취 길놀이'를 시작으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의 액을 막고 복을 비는 '백매이 타령'과 '널뛰기' '웃놀이' 등 새해맞이 노래 부르기로 꾸며진다.

이어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땅재주 '살판'과 무대 중앙에 세운 긴 장대(솃대)에 오르는 '솃대놀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굿'과 채상소고놀이, 상쇠놀이, 사자춤, 버나놀이 등 화려한 '연희'도 만날 수 있다. '줄타기'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본 공연에서 앞서 1시간 전부터(오후 2시)는 예원당 마당에서 민속놀이체험 한 마당이 열린다. 설맞이 민속놀이 3종 경기, 운수대통 율점보기, 연날리기, 널뛰기, 솃대만들기, 추억의 옛날간식 가래떡구이 맛보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다. 개띠관객과 한복 입은 관객과 3대가 함께 온 관람객에게는 선물도 증정한다. /정해은 기자

## "설 명절 남원예촌에서 놀아보시게"

15일부터 4일간 전통체험 '도란도란 설래 보시게'

남원의 새로운 전통문화 명소로 조성하고 있는 남원예촌에서 설 연휴를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체험행사 '도란도란 설래(來) 보시게'가 열린다.

'도란도란 설래(來) 보시게'는 희망을 담은 전통체험행사를 테마로, 가족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란도란 화투불',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을 잡아라', 아랫목에서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는 '이랫목 할머니', 아궁이에 불지피며 큰 술에 고구마를 삶아먹는 '속삭삭 아궁이',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웃놀이', 새해 희망을 띄우는 '연날리기' 등을 마련한다. 또, 2017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한옥체험관에서는 한옥에서 즐기는 인형극을 통해 남원예촌의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설날 귀성객과 연휴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애를 확인하고 새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 연휴 전통체험행사는 남원예촌의 설 연휴 전통체험행사는 남원예촌의



성공과 전통체험 관광상품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남원시는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남원예촌에서 올 상설프로그램으로 '황희와 함께하는 이야기할머니', '전통놀이', '서당체험', '민살풀이 공연', '버스킹', '프로포즈이벤트' 등을 운영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곳 남원예촌에서 색다른 겨울철 관광축제인 '동동동화

(冬童話)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속에 성공리에 개최했다.

한편, 남원예촌은 관광투원 북문쪽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612억원을 들여 5개 지구에 관광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지구 전통한옥숙박 체험단지와 2지구 전통문화체험단지, 3지구 예촌길을 조성했고, 현재 4지구 고샘테마거리와 5지구 예촌마당을 조성 중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시, 17일 국립전주박물관서

'평창올림픽 이동형 라이브사이트' 운영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에 직접 가지 못하는 전주시민들도 선수들이 흘리는 뜨거운 땀방울과 감동을 전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17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올림픽 경기중계와 각종 지역문화 공연을 통해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이동형 라이브사이트가 운영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동형 라이브사이트는 올림픽대회가 간 전국 17개 주요도시별로 1일씩 경기중계방송과 라이브공연이 진행되는 장소로 대회 조직위 주관 유랑공연팀(벅츠쇼)과 지역문화공연(관소리·성악·시 콜라보 연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운영시간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다.

또한 동계올림픽 중계방송도 함께 관람하고 인기종목인 스키 점프와 봅슬레이 등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주박물관이 마련한 야구, 투호, 링 던지기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피겨스케이팅과 컬링, 아이스하키 등 인기종목 중계방송과 함께 운영되는 이동형 라이브사이트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국립전주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함께 올림픽대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창조경제센터와

지역문화예술 기반 활성화 협약 체결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는 지난 9일 혁신적 지역문화예술 기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전북도 문화·예술·관광분야에 대한 자원조성협력 및 4차 산업 시대 문화예술 융합기업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사업 및 활동에 대한 협력, 문화예술관광분야 창업·창직 등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활성화 연계협력, 문화기업 육성을 위한 매칭 사업 발굴 및 지원, 4차 산업 시대 신기술문화융합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특화된 사업 방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관광분야 진흥, 창업, 자원조성, 문화융합사업 발굴, 마케팅 등을 위한 융합적 사고를 확대하여 연계협력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의 첫걸음으로 전북도에서 주최하는 청년축제를 협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인재를 성장시키고 지역에 정착하는 프로그램과 순수예술작가의 예술성을 문화산업으로 확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함께 한다.

이와 관련 이병천 대표이사는 "전북 문화예술인의 새로운 전년을 시작하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박광진 센터장은 "전북 혁신창업의 허브로서 문화예술의 혁신적 기반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